

## 결 정

2018 - 4020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 
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

## 주 문

스포츠조선(sports.chosun.com) 2017년 12월 29일자(캡처시각) 「간호사 “비뇨기과” 절대 가지마세요!」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치한다.

## 이 유



<17. 12. 29. 12:00 캡처>

<<http://sports.chosun.com/news/ntype5.htm?id=201712300100217030015315&ServiceDate=20171229>>

스포츠조선은 남성건강기능식품인 ‘브이맥스’를 광고하면서 그 제목에 「비뇨기과에 절대 가지마세요」라고 주장했다. 그러나 이 제목을 클릭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다. 근거 없이 병원에 가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자를 오도해 건강을 해치게 할 위험성이 크다.

이는 ‘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, 오도하는 내용’을 금지한 신

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(1)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※참고

<<http://buxmeto.co.kr/jsad/7/?ref=1827&cc=716939>>

**데일리토픽** 남성 고민 1순위 "브이맥스로" 간단히... 화제!  
- '브이맥스' TV CF 기념 제품할인 이벤트 진행.. 신청자 폭주!

기사입력 : 2017-12-28 09:13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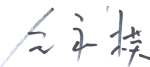



남성건강기능식품으로 유명한 캐나다에서 남성건강기능식품 '브이맥스'가 출시가 되는 동시에 해외에서 큰 호평을 얻어 국내에도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받고 들어오게 되었는데 국내에서도 중

2018년 2월 7일

한국신문윤리위원회

위원장	김 용 담	김용담
위원	정 승 호	정승호
	장 명 국	장명국
	이 동 현	이동현
	장 인 철	장인철
	김 규 식	김규식
	강 희	강희

하 윤 수   
김 영 모   
박 현 갑   
박 미 경 